

뛰는만큼 지지율 오른다 '사즉생' 각오 한판 승부

6·13 격전지를 가다

■광주 동구청장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산수동 일대에서 만난 유권자 대부분은 "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후보간 열띤 경쟁 분위기와는 달리 아직까지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광주 동구는 유일하게 여야 3당이 구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격전지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연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 등이 동구에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고, 각 당 후보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한 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젊은 층 대다수는 지방선거에 무관심하는 분위기였고,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거 열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산수동에서 만난 김영수(57·동구 소태동·운수업)씨는 "촛불 집회 이후 정권 교체에 대부분의 관심이 쏠리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줄었고 '여차피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아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시장과 구청장 후보들도 열심히 뛰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의 거리 유세전이

임택·김영우·김성환 3파전

유권자 적어 조직력 당락 좌우

'호남정치 1번지' 지도부 총출동

시장 등 돌며 바닥 표심잡기 안간힘

뜨겁다"고 설명했다.

도심권에서도 과거 선거와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때 이른 무더위와 북미정상회담, 월드컵 등 대형 이슈가 많은 탓인지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동구 황금동 한 웨딩숍 대표 노광환(44·동구 학동)씨도 "50대 이상 고령자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젊은 층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솔직히 누가 구청장에 출마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지인들도 많다"고 털어놨다.

동구 선거구 특징은 유권자수가 8만2265명 뿐이어서 '뛰는 만큼, 지지율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각 정당 후보들은 발품을 팔아가며

바닥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구의 역대 투표율은 50~60%가량으로, 4~5만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2만여표만 얻으면 안정적으로 당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조직력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민주당의 전반적인 우세 속에서 바른미래당은 젊은 층, 민주평화당은 노인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만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국회의원이 동구지역에서 오랜 시간 터를 닦아와 지지층이 탄탄하고, 현역 김성환 청장도 옛 국민의당 탈당 후 민주평화당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점에서 야당 후보들의 조직력도 견제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후보는 임택(54) 전 시의원이다. 임택 후보는 지난 1998년 36세의 젊은 나이에 동구의회 기초의원으로서 당선된 후 재선 동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광주시의원을 역임했다.

임 후보는 '청년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청년친화형 자치구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칭 '광주 동구 구청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구청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이해와 욕구,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원을 투입해 활력을 잃은

■동구청장 후보

임택
54·민
정당인



김영우
49·바
정당인



김성환
56·평
동구청장



재산	5600만원	1억9200만원	5억9100만원
병역	병역필	병역필	병역필
세금	53만원	136만원	8384만원
전과	전과없음	전과없음	전과없음
학력	전남대 정치학 박사 수료	조선대 정책대학원 석사	영국 세필드대학 정치학 박사
주요 공약	·주민우선고용협약회사 선정 ·창업지원센터 지속 강화 ·청년지원정보센터 신설	·인쇄의 거리 활성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출산 육아지원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동구 인쇄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임 후보는 이날 TV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배식 봉사를 한 뒤 오후에는 계림오거리에서 이병훈 동남울지역위원장과 합동 유세를 했다.

김영우(49) 전 시의원은 광주에서 유일한 바른미래당 구청장 후보다. 김 후보는 광주 동구의회에서 4·5대 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는 등 풍부한 지방정치 경험을 앞세워 표발을 다지고 있다.

김 후보는 "동구의 재정 자립을 목표로 오직 구민만을 위한 구청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와 예술관으로 먹고 사는 예방동구 ▲주민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동구 ▲일자리가 풍부한 동구, 자급자족도시 동구 ▲이제까지의 동구를 활용한 새로운 동구 ▲아이와 여성, 어르신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동구 등 '김영우의 다섯 가지

동행약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도 박주선 당대표, 권은희 시장위원장 등 당내 국회의원들의 지원 속에서 학동 전남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합동 유세를 했다.

현역 구청장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성환(56) 후보는 옛 국민의당을 나와 민주평화당 옷을 입고 재선에 도전했다. 김성환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동구 주민우선고용 협약회사 선정, 창업지원센터 지속 강화, 청년취업정보센터 신설, 주부 일자리 공동체 지원사업 및 노인 실버택배 일자리 사업 확대, 주민참여형 도시 농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동구를 문화예술·도시재생의 모범 도시로 만들고, 여성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환 후보는 이날 지원동에서 아침인사 유세를 한 뒤 문화전당, 산수시장, 계림동 등지를 돌며 거리 선거운동을 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호남서 압도적 밀어줘야”

민주당 광주·전남 선거 지원 유세 나선 고홍 출신 송영길 국회의원

"광주·전남은 문재인 정부 창출의 1등 공신입니다. 광주·전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합니다."

4일 오후 광주시 금남로3가 광주일보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호남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송영길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곳곳을 누비며 지방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고홍 출신인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북방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의 지방선거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남, 울산, 대구까지 민주당의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전남 일부에서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호남지역 선거 승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남북 화해 분위기 정착과도 연관이 있어 호남 표심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당달아 전남의 민주당 열세 지역을 중심으로 러브콜이 쇄도하는 등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3일 전남에 내려온 송 의원은 고향인 고흥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연 이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송 의원의 광주·전남 지원 유세 첫 일정은 지난 3일 오전 9시 곡성군 곡성읍 전통시장에서 시작했다. 유권기 곡성 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한 시간가량 펼친데 이어 10시부터는 구례읍 5일시장으로 가 김순호 구례군수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이날 오후에는 광양, 여수, 순천을 돌며 김재무, 권세도, 허석 후보를 뵈었다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고흥읍내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오전에만 고흥장터, 보성 벌교 장터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했고 광주로 방향을 틀어 광주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광산구청장, 북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이어갔다"면서 "1박 2일 일정으로 무려 12개 선거구를 도는 강행군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또 송 의원은 "지역민들을 만나면 항상 '호남 출신' 정치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느낀다. 지역에도 신경쓰면서 꼭 중앙 무대에서 큰 정치적 해달라는 말씀도 있지만, 제가 광주전남 출신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셔서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다"며 웃었다.

송 의원이 '송영길이 전남, 광주를 간다'는 솔로건을 내세우고 다른 곳도 아닌 광주·전남 지원유세에 힘을 쏟는 이유는 그와 광주·전남의 두터운 인연 때문이다.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초·중·고를 모두 광주에서 마쳤다. 대동고를 졸업하고 연세대(경영학)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줄곧 광주·전남에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낸 송 의원은 지역 발전 등 호남



고홍·광산 등 12곳 돌며 지원 유세

신 친문핵심으로 북방정책 맡아

8월 전대서 민주당대표 유력 후보

과 관련된 일이라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는 "지역을 위해 발로 뛰다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함께 호남 출신 정치인 송영길에 대해서 지역민들께서 조금은 알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눈코 뜰새 없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외국어 및 경제 공부 등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학구파' 정치인으로 송 의원을 평가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까지 4개국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고 법률지식도 해박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라는 게 송 의원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송 의원은 특히 지난 2017년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북방위원장으로 동북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정책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지방선거와 별개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신 한반도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대 강국 주요 대외정책 책임자들과 쌓아온 네트워크 그리고 그동안 갈고닦은 외국어 실력과 경제분야 공부 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대한민국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꿈의 날개가 되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높게 비상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이 대학생 여러분의 꿈을 위한
날갯짓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 신청기간 5월 17일(목) 9시 ~ 6월 15일(금)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5월 17일(목) 9시 ~ 6월 19일(화) 18시
- 신청대상 국내대학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1학기 신·편입생은 재학생으로 신청
-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 ☎ 1599-2000

2018년 2학기 소득구간은 1학기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
(단, 기초·차상위 계층과 가구원, 소득·재산 등 정보 변동자의 경우 2학기에도 소득구간 조사 반드시 신청)

교육부 한국장학재단